울산흰돌교회 셀모임 나눔지

2025년 3월 30일 주간

셀 모임은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주일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시간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하나 됨이 있는 시간, 위로와 공감이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됩시다!**

찬양 - 예수 예수!

ICE BREAK! 지난주에 내가 가장 잘 한 한가지는? 왜?

- 1. 오늘 본문 말씀 / 행 28:16-22
- 2.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사탄의 거짓말

나치 선동가 괴벨스가 한 한 유명한 말이 있다.

거짓말도 100번만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번 들으면 부정하고, 두번 들으면 의심하고, 계속 들으면 믿게 된다.

사탄은 지금도 이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 뜨리려고 한다.

그럼 사탄의 거짓말은 무엇일까?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한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행 28:21)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지만 긍정적인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 도시에는 아직도 주님의 백성들이 많다.

나눔: 우리 주변에 그래도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둘째로, 모든 사람은 절대 네 말을 듣지 않는다.

[행 28:22]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듣고 싶어한다.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우리가 사단의 말에 속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의외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나눔: 나에게 너무 쉽게 전도 되어 온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교회에 왔는가?

셋째로, 네가 전해도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는다.

[행 28:24]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는다. 의외의 사건에서, 의외의 시간에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 들인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한다.

나눔: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나?

- 3. 다함께 기도 기도부장 인도
- 1)우리 교회가 믿음직스럽고 영적으로 건강한 중직을 세워가게 하소서.
- 2)원로 목사님 선교사역 잘 감당하고 담임 목사님 영성, 지성, 체력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 3)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5명을 부활 주일에 꼭 초청하게 하소서.
- 4. 헌금 및 광고(찬양하면서)
- 5. 주기도문으로 셀 모임을 마칩니다.



희망과 행복을 주는 울산흰돌교회